

# “아기 울음소리 늘려라”...전남도, 출산 정책에 615억 투입

### 난임 지원·출생기본수당·건강관리 서비스·미숙아 치료 등 확대 지원 임신·출산·양육 통합 플랫폼 구축...전남 출생아 수 9년만에 증가 예상

전남도가 난임 지원, 출생기본수당, 미숙아 치료, 책 보내기 등 출산 관련 39개 사업에 6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맞춤형 출산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월 말 현재까지 전남 출생아 수는 7605명으로 전년 누계보다 4.2% 증가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은 올해 한층 강화된다.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을 생애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외에 전남도에서 4만원을 추가 지원해 검사 항목도 보강했다.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도록 정부 지원 횟수 초과자도 전남도에서 추가 지원하고, 한방 난임치료 최대 18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임인구 확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외 올해부터 정·난관 복원 시술,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모든 출산 산모·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2025년 2개소(여수·광양), 2026년 2개소(목포·영광)를 추가로 새롭게 개원한다.

모든 출산가정이 저렴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중

19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12개 시·군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최대 30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최대 1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 취약 산모·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가정의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며, 0세 출생아는 첫 만납이용권(첫째아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바꾸어(카드포인트)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는 책 꾸러미 3권도 배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민이 각종 출산 지원정책을 쉽게 찾아 신청하도록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를 2월 중 제작·배포하고, 임신·출산·양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추세 반등 조짐이 보이는 만큼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서 편안한 여행을’...관광약자 위해 환경 개선

### 전남도, 7~21일 시·군 대상 공모 화장실 개보수·점자블록 설치 등

전남도가 지역을 찾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관광지를 편안하게 여행하도록 2025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공모한다. 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개소 내외의 관광지를 선정하고, 관광약자와 전문가 등의 컨설팅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수요자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관광지에는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보수 ▲시설 간 이동 동선 개선을 위한 경사로 및 점자블록 설치 ▲상설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되며, 개소당 2억원 내외, 총 사업비 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수유실·기저귀 교환대(남성 화장실 포함) 설치, 방범 설비(안전벨 등), 휠체어와 유모차 비치

등이 포함된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은 지난해 한국관광 100선에 8곳이나 선정되고, 여름 휴가지 만족도 전국 3위를 기록할 만큼 매력적인 관광도시”라며 “누구나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도록 무장애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 ‘전남도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진도 세방낙조전망대, 무안 초의선사 탄생지, 광양 배알도 수변공원 등 29개소에 총사업비 55억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고향사랑 기부 목표액 조기달성 이루자” 전남도는 5일 도청 왕인실에서 고향사랑 실천 봉 강화를 위한 ‘2025년 전남도-시·군 고향사랑 실천 활성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서포터즈 담당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300억 원,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 조기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의회 끝없는 갈등...집행부 견제 뒷전 계파 정치에 몰두

광주시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수개월째 내용을 이어가면서, 집행부 견제 등은 뒷전인 채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계파 갈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전남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말 물의를 빚은 시의원 2명에 대해 논의했다.

정다는 운영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자와 캔맥주를 마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도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심철의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당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술집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지적을 받아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시민

이 해당 문제를 알고 있고 의원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분회의장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 내부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에선 공개 사과를 해야 윤리특위 회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안팎에서 지난해 있었던 내용을 올해 첫 회기까지 끌고 와 ‘처분’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 자체가 차기 선거를 겨냥한 의회 내 세력 다툼의 시작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 선거 등 원 구성 과정에서 내재된 감정싸움과 의원들 간 소통 부족, 지방선거를 앞둔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는 동일한 상임위

원장 낙선자에게 세 차례의 투표 기회를 주기도 하고, 특정 지역구가 의장·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등 의회 내에서 갈등이 쌓여왔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기반인 광주 북구갑 시의원들과 출마가 유력한 민형배 국회의원 지역구인 광산을 시의원들 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의원은 “사실상 시의원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도 거치지 않고 분회의 공개 사과를 하라는 것 자체가 해당 의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시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고 사과받으면 될 일을 세력 싸움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지방선거 의식했다...전남도의원들, 지역현안 해결 적극 나서

전남도의원들이 새해 들어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밀착된 현안을 챙기는 ‘현장형 일꾼’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 387회 임시회 첫 날에만 9명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과 5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김문수(민주·신안 1) 도의원은 동료의원 42명의 동의를 받아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을 내고 편향적이고 불합리한 감축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이번 감축안에 따라 해남은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2184ha의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고 영암(1573.6ha), 고흥(1378.3ha), 나주(1342.9ha), 영광(1082.0ha) 등도 역대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태(민주·나주 3) 의원도 48명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을 냈다.

윤명희(민주·장흥 2) 의원도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안정성 마련을 촉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박형대(진보·장흥 1)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주중섭(민주·여수 6)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무경(민주·여수 4) 의원은 오는 2026 여수세계박람회, COP33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여수공항의 항공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수공항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원들의 행보가 더 분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착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당관성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